

사 협 동 정

최박사는 이날 최근의 고능력우들의 번식문제, 과산증, 대사성 질병 등은 부적절한 건유기관리로 인한 별급질병으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건유기 착유사료, 착유 TMR사료 유도사양 금지, 검유우사에서의 밀사금지 등 적절한 건유기 사양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적절한 분만우 사양관리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CJ Feed는 요즘 낙농사양이 TMR위주로 바뀌고 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TMR사양관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농림부

AI발생시 위험지역 내 사료공장 ‘차단’ 규제완화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오염지역과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사료공장 등에 대해 취해졌던 폐쇄조치가 앞으로는 이동제한으로 완화되는 한편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 축종 사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생산과 유통도 허용됐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키로 하고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4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농림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AI 방역실시요령을 개정고시 한 것은 그동안의 사료공장에 대한 폐쇄 및 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야생조류에 의한 원료·사료의 오염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인 만큼 AI 바이러스가 사료에서 증식할 수도 없고 EU(제한규정 없음)나 일본·호주(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외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등의 사례를 감안한데다 한국사료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AI 방역실시요령’ 내용에 따르면 오염지역내 사료공장의 사료·원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협의회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토록 했다.

또 위험지역 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축종 사료에 한해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이 검역원장으로부터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건의 받은 경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이동제한 및 살처분 대상에 오염지역(5백m) 내 돼지를 포함하여 돼지의 이동제한·살처분 규정을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그리고 돼지 및 그 생산물로 하되, 단 돼지는 역학적 관련성

이 높거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가금인플루엔자 용어도 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토록 했다.

● 대한사료공업(주)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호평

대한사료공업(주)은 농림부의 축산물브랜드 육성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농장의 안정적인 출하와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양축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사료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팀은 2004년 4월 7일 정식 출범해 업종별로 양계(계란, 닭고기), 양돈, 축우(한우, 육우), 기타(오리, 메추리)로 구분되며, 농장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비자에게 인지도 향상을 희망하는 지자체, 농·축협,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영농조합법인, 협회나 단체, 고객 농장 등이다.

대한사료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2006년 6월 1일 유통사업팀을 신설하고, 지원 시스템을 확대했으며, 향후 우수축산물 인증 프로그램(FQA)을 자체 운영해 대한사료와 연관된 우수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사료 관계자는 "우수 브랜드 협력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산기반 확보, 물량공급 능력, 고 품질 차별성, 위생 안전성, 일정한 품질관리 능력 등을 점검받게 된다"며 "각 축종별 영양 담당, 사양관리 담당, 수의질병 담당 등의 전문 지원팀의 자문을 받아 브랜드 별 차별성 확보를 위한 영양사료 설계, 사양시험, 차별성 테스트를 거쳐 브랜드를 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상표등록과 홍보는 외부 전문업체와 유통사업팀이 공동 협조로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조직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대한사료 관계자는 "브랜드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우수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브랜드 축산물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사 협 동 정

흑염소 전용사료 ‘히트 예감’

또한 대한사료는 최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흑염소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1C 희망축종인 흑염소산업의 육성방안과 경영전략’ 심포지엄에 흑염소 전용사료 3종과 흑염소 전용 TMR사료를 전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축산과학원과 기술이전 협약을 한 흑염소 전용사료 2종, 이유기 사료(어린 흑염소)와 육성기 사료(흑염소 펠렛)는 생후 15~90일령에 급여하는 사료로 질병발생 비율을 현행 보다 15% 감소시키고, 발육은 35.8% 향상시킨 제품이다.

육성기 사료(흑염소 펠렛)는 기존 소사료보다 성장률을 11.9~22.4% 높였으며, 소화율도 8.4~9.8% 높인 사료로 흑염소의 성장과 육질을 개선시켰다.

이와 함께 번식용 흑염소 펠렛사료는 고단백, 중에너지로 강화해 건강한 어린 흑염소 분만을 유도하고 유기태 광물질과 비타민을 강화해 질병 저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사료는 흑염소 전용사료에 이어 현재 흑염소 전용 TMR을 시험 사양단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길 부사장은 “흑염소 산업은 사료, 약품, 식품유통, 도축장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과학원과 연대를 강화, 흑염소 사료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삼양사

사료BU, 낙농주부대학 수료식 가져

(주)삼양사 사료BU는 지난 8월 29일 낙농주부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낙농주부대학은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사양관리 등 낙농사육 전반에 대한 강의와 우수목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배합사료 결정시 영향력이 높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삼양사 낙농사



사료BU, 낙농주부대학 수료식

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야무진’ 양돈 생산성 향상 회의 개최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가 양돈펠렛 신제품 사료인 ‘야무진’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각 지구별로 ‘야무진’ 펠렛사료 판촉을 위한 세미나와 사료효용 콘테스트 개시 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야무진’ 사료는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료곡물가에 대응, 사료 허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애심차게 개발한 사료이다.

퓨리나 측은 또 사료허실 뿐만 아니라 사료 효율을 개선시켜 주며 질병예방, 분뇨량 감소라는 부수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펠렛사료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급이기, 급수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펠렛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알맞은 시설과 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순일 이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제 곡물가 등을 감안, 농가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사료 한톨 한톨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농장관리에 임해야 하는 때이며 펠렛사료는 이같은 사료 허실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 협 동 정

● (주)트루라이프

식품사업팀 워크숍 개최 – “식품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

초일류 식품종합그룹으로 나아가는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식품사업팀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7년을 뒤돌아보고 200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정삼수 식품사업팀장은 “당사 식품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시장자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사업팀 워크숍은 향후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 식품사업팀 워크숍 회의 모습



▲ 식품사업팀 워크숍 단체 사진

● (주)케이씨피드

친환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주)케이씨피드(前 경축)의 고객인 구미시 도개면 소재 도개신곡농장(대표:장점석)은 2007년 9월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도개신곡 농장은 뛰어난 자연조건에서 육성된 성계에서 생산되는 구미에서 대표적인 고품질 계란 생산농가이며, 특히 신선하고 영양만점의 계란을 생산키 위한 친환경적 사양관리는 정평이 나있는 농가이다.

21세기 웰빙시대를 맞아 식품의 안정성이 대두되고 한·미FTA 등에 따른 자유 경쟁체제에서 동사는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축농가와 긴밀한 컨설팅을 통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양축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인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향상을 위한 필수과정이 될 것이므로 양축농가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주)케이씨피드가 앞장 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 농산물 이용 캠페인 및 문화탐방

또 케이씨피드는 지난 10월 13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경주 문화 엑스포 행사장에 모여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이용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케이씨피드의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축산물의 영양적 우수성과 안전성을 외치며 계란을 나누어 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 임직원은 우리 축산물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축산업 발전에 기본 토대가 됨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토탐산 산행, 호프데이 행사 등을 통해 직원들간의 단합은 물론 우애를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주)케이씨피드가 되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지역담당 윤주환 주임, 장점석 대표내외, 정일용 주임.

